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어둠 속의 희망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다. 영화관을 찾는 사람도 급감해서 단축 운영 및 휴관이나 폐관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공시설은 대부분 휴관 상태이다.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측은 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지금 사태는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 우리의 삶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른다.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으로 90세나 100세를 예측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질병으로, 누군가는 사고로 일찍 죽는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끈다. 그 결과 생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어쩌면 삶의 여정에서 어둠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 속에서 '희망'을 떠올린다.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리베카 솔닛은 말한다. “희망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같다. 희망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산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기에, 희망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다. 희망이란, 약속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솔닛이 생각하는 ‘희망’은 ‘세계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성취와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지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향해 그렇게 좀 더 삶의 근본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인과 공동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노동을, 시간을, 돈을,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다음은 리베카 솔닛의 그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어느 날 아침 비를 맞으며 케네디의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노라니 참으로 바보 같고 부질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여성 파업’ 소속의 그 여

성은 말했다. 몇 년 후 그는, 가장 주목받은 ‘반핵행동’ 중 한 사람이 된 벤저민 스팍 박사가 자기 삶의 전환점은 한 작은 무리의 여성들이 비를 맞으며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일은 대단한 성공이나 혹은 거대한 악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는 일이다. 작은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그 일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향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씩 쌓아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누군가는 하찮은 것이라고 비웃을지라도, 비록 큰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만약 그것을 일상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면 비록 연합하지라도 작은 승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치와 사회 각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일,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갈 수 있는 희망이 아니겠는가.

종교칼럼

마음의 화평

되어버렸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불륜에 빠진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혐의의 기소되어 우죄 판결을 받는다.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두 배의 중형형을 받은 앤디는 사랑에 빠진당하고 자우마저 속박당했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그러나 감옥 속에는 또 하나의 사회가 존재한다.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노튼 소장과 그의 부하들이 군림하는 무법의 폐쇄 사회가 곧 쇼생크이다. 앤디는 깊은 심호흡을 한다. 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마음까지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앤디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화평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화평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사슬에서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주고, 수동적인 감옥 안의 일상에서 빠져나와 능동적인 에너지가 된다.

그 후 앤디는 10년에 걸쳐 감옥 안에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고 토미라는 좀도둑 청년에게 글을 가르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앤디는 하루하루 손바닥만 한 돌 공예용 망치로 쇼생크의 벽에 터널을 뚫겠다고 날마다

한 주먹씩의 돌을 뜯어낸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결국 탈출하여 햇빛이 아름다운 바다로 갔다는 이야기다. 화평한 마음은 이처럼 감옥처럼 극한 공동의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

성경은 화평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내적인 안식이며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표현하고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또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화평의 관계라고 가르친다.

전 세계는 지금 전염병으로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근심과 두려움이 많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하여 몸과 마음은 잔뜩 공포에 질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 깊은 심호흡을 해보자. 현실은 감옥처럼 답답해도 깊은 심호흡을 통하여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 나야 한다. 이 작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다. 돈이 많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거물이 아니어도 즐길 수 있다. 잠시 마음을 열면 찾을 수 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려보라. 깊은 호흡이 되면 화평하여 마음의 여유가 느껴진다. 화평을 통한 마음의 여유만이 일상의 여유를 낳는다.

말하자면 마음의 화평은 내 일상을 지켜준다. 화평은 고단하고 팍팍한 생활에 축적한 물을 뿌린다. 화평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며, 매일 아침 눈을 비비고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의미한다. 평화의 삶은 작은 호흡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위대함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자. 오늘이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말고 직면하여 호흡하게 하자. 감옥에 갇혀 숨도 못 쉬고 죽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서 코끝에 호흡을 달아보자. 호흡은 생명력이고 살아 있는 오늘은 화평한 날이다. 태양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화평한 내일은 새로움이다. 화평한 오늘을 그러므로 어제와 다르게 느끼는 날이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축복 받은 것이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을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멈춘 상태인데도 광주에 친환경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언뜻 보면 착각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주체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최근 1차로 경력직 23명을 선발했다. 광주·함평 일대 빛그린산업단지에는 완성차 공장 5개 동을 짓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행복주택(아파트)도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을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에 눈光是 채 속도만 낸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장 노동계가 파기 선언을 예고한 마당에 이를 모른 채하고 속도만 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히 완성차 공장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

가 바로 노동계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최근 청와대에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3명의 교체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고 거부할 경우 다음달 7일 청와대 앞에서 사회적 합의 파기 선언식을 예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글로벌모터스의 1대 주주로 사실상 법인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

만에 하나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한다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가능하기조차 힘들다. 공장을 짓고 인력을 채용해 놓고 사업이 멈춘다면 천문학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책임진다 말인가. 우리는 F1대회를 잘못 유치했다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한 아픈 경험에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노사 상생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는 상상 파트너인 노동계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이다.

개학 앞둔 초중고 마스크 확보 차질 없도록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들이 개학을 10여 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이 확보한 마스크 분량(25일 현재)은 각각 42만 장과 65만 장으로 모두 107만 장에 불과한데, 이는 지역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각 2일·3일 분량(하루 1매)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분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학교 보건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긴급 상황 때 사용하기 위한 300여 장뿐인데, 의료상사 등에 구입을 타진했으나 소식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조업체들이 성인용 마스크 생산에 주력한 탓에 어린이를 위한 소형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 자체 비축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학하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고교생은 약국 개점 전에 등교하고 하교 후에도 ‘방과후활동’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출생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부모가 대리 구매할 수 있지만, 2009년 이전 출생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과 중·고교생은 직접 구입해야만 한다.

교육 당국이 초·중·고 개학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방역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등교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단 감염 노출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이제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의 노력이 불거져오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생산에 주력한 탓에 어린이를 위한 소형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無 等 鼓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가 간 분쟁이 많았던 시기에는 전쟁에서의 리더십이 강조됐다. 자연히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 국가를 지켜야 했고, 승리를 위해서는 지형과 기후·날씨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승승장구하며 세계 역사를 바꿔 나갔던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나폴레옹이 한때 모스크바까지 점령했지만 결국 참패한 것은 러시아의 추운 날씨 탓이었다. 겨울에 시베리아는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시베리아 공기가 러시아 전역을 동토의 땅으로 만든다.

1812년 6월 프랑스군은 ‘대륙 봉쇄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 정벌에 나선다. 하지만 러시아는 응대하지 않고 후퇴 전략을 통해 프랑스군을 내륙으로 끌어들인다. 러시아의 여름·가을은 낮에 40도까지 올라가 무덥고 습하지만 밤에는 영하 10도가

지 떨어진다.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프랑스군은 사망자가 속출했고 전염병까지 만연해,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절반이 숨졌다. 게다가 11·12월 들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후퇴했으나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60만 명 중 고작 수천 명만이 목숨을 건졌다.

히틀러의 소련 침공도 나폴레옹의 실패와 판박이처럼 닮았다. 히틀러는 1941년 소련 침공에 앞서, 기상대로부터 1812년과 그 해(1941년) 겨울의 날씨가 비슷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진격을 명한다. 예보대로 그 해 12월 기온은 영하 38도까지 급강하했다. 병사들의 사망이 속출하고 탱크까지 작동하지 않아 참패한 히틀러는 이후 ‘내가 기상대 예보를 믿고 대책을 미리 강구했다더라면’ 하고 수차례 되뇌면서 후회했다고 알려진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공통된 적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퇴치하는지 여부가 한 나라의 국력과 리더십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김염병 리더십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며 약탈한 방향으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하루하루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듯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기 고

코로나19와 보이스 피싱

것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과 인터폴의 국제 공조 활동이 계속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에서는 의심 거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및 고객 문진을 강화하고 경찰청의 ‘보이스 피싱 112신고·현장 검거 체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 회사 일선 영업점에서 2019년 피해액의 22%에 해당하는 1441억 원(7673건)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정부와 유관 기관의 노력 외에 개인이 보이스 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금융 회사의 서비스 및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송금할 때 이제 버튼을 눌렀더라도 최소 3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사전에 입금 계좌를 정해 놓은 계좌로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으나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1일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이체가 지연되는 지연 인출·이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낚이지 않으려면 ‘전화 한 통’ 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필자의 아내도 하마터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될 뻔했다. 그는 우체국으로부터 최근 신용카드에 문제가 발생해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상한 마음에 우체국 대표 번호로 문의를 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경찰서 직원이라면서 걸려온 전화가 사기임을 인지하고 다행히도 사기꾼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다음 전화를 받기 전에 무조건 전화를 건 사람이 언급한 해당 공공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이 있다.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가능하다는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검찰·경찰이라고 사칭하고선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며 계좌번호, 비밀 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수법 역시 전형적이다.

이밖에 예금을 안전 계좌로 옮겨 주겠다며 중간에 돈을 빼내는 사기꾼도 다반



심광섭
농협 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04케팀지원단장

속단하기 이르지만 코로나19사태가 진행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연일 현신하는 의료진, 정부 관계자 그리고 작은 힘이라도 함께하겠다고 협지를 달려온 자원봉사자, 금전과 물품으로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있어서 일 것이다. 이들은 하루빨리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탠 작은 영웅들이다.

하지만 이런 때를 오히려 이용해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들 중 한 무리가 바로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보이스 피싱 누적 피해액만 2조 4000억 원(21만 5537건)에 달한다. 남의 일처럼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2799만 명 중에서 130명당 1명이 1인당 1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며 놀라지 않는 이가 없을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9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 |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21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